

# 일본의 책임: G20, G8 및 APEC

칸 나오토 일본 총리 연설

[인쇄본을 주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저해상도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뉴스레스크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일본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적 통합과 수용적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이 지금보다 중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8 및 G20 정상회담과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APEC 지도자 회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와 일본의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우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국가가 여전히 실업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수용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연이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캐나다를 방문하면 저는 스티븐 하퍼 수상 및 다른 지도자들과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논해보고자 합니다.

## 세계 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세계 경제가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국이 추구하는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떠한 집단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2010년도 예산에는 아동급여,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등, 일반 가정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중장기 재정 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본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예산 배정안을 보다 과감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견실한 경제, 견실한 공공재정, 그리고 견실한 사회보장을 동시에 실현시킴으로써 저는 일본 경제를 재건하고, 그럼으로써 세계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G8 및 G20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신흥경제국들에 저마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세계 경제를 견실한 성장의 길로 확실히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의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G20를 가장 중요한 국제 경제 협력 토론회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은 G20를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이 세계 경제의 경영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토론토 정상회담에서는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G20가 피츠버그에서 합의했듯이, 경제 정책의 상호 평가를 위해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부분적 원인이었음을 상기하여, 더 견실하고 건전한 금융 감독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위기로부터 빠른 속도로 탄력 있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견실한 성장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나날이 더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일본은 영광스럽게도 2010 APEC 의장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APEC의 선진경제국들이 ‘자유개방 무역 및 투자’라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해의 APEC 의장으로서 저는 ‘변화와 행동’이라는 주제 하에 APEC을 21세기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주제 하에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을 더한층 촉진하고 지역 전체를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성장 전략은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수용적 성장을 가져와야 하며,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다른 지역적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APEC 지도자 회의와 G20 서울 정상회담이 나란히 열립니다. 저는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자 G20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는 G20 및 G8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목소리와 경험을 세계에 전하고, 그와 동시에 G20 및 G8의 메시지를 APEC에 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균형잡힌 개발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G20 및 G8, 그리고 APEC 사이의 시너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세계적 문제에 관하여:**

수용적 성장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빈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계적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 모든 어린이는 인간 안보를 실현시키는 사회, 기아나 전염병이나 지뢰나 분쟁이 없는 사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초등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현실이며, 올해 국제 사회는 과연 새로운 포괄적 법률 문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의 수준에서 25퍼센트 감소시킨다는 매우 야심찬 중기 목표를 설정했으며, 앞으로 국제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녹색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양하고 필수불가결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은 포괄적인 생물다양성 보호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G8은 이러한 세계적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기본적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입각한 G8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G8 무스코카 정상회담 의장으로서 개발 문제를 비롯하여 산모 및 아동의 보건을 주요 의제로 삼은 하퍼 수상의 리더십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고 오는 9월에 UN 정상회담이 개최될 상황에서, 2015년까지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려면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사회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G8은 주요 기부자 집단으로서 이러한 세계적 노력을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G8은 또한 평화와 안전이 개발의 전제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한 평화 구축의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 국제 사회는 이란과 북한에 의해 야기된 것과 같은 시급한 정치적 문제와 안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결속된 G8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G8 회원국들의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G8의 결의에 대해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세계는 지금 그 전례가 없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어떤 나라도 복잡한 세계적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책임을 다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저는 G20 및 G8, 그리고 APEC의 틀을 통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